KMI
국제물류위클리
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

제568호
2020. 10. 16.
www.kmi.re.kr

해운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Tel. +82-51-797-4588 Fax. +82-51-797-4609 •총괄: 김은수 센터장•감수: 박성준 부연구위원

Contents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2019년 13개 주요국 국제 택배 건수 1,000억 건 돌파

물류정책 · 산업동향

1. 미국 제조·유통업체 캐리어,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기술 개발
2. 미 캘리포니아 수역, 내년부터 선박 기름유출 시 최고 100만 달러 벌금
3. UPS 공급사슬솔루션, 베트남에 공세적 투자 확대

명사 스피치

"국내 최초로 정부 주도의 항만 5G 시험대(테스트베드)를 시범 구축함으로써, 항만물류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. 각 기관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반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항만물류 분야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."

해양수산부 정준호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장
(2020. 10. 14. /한국해운신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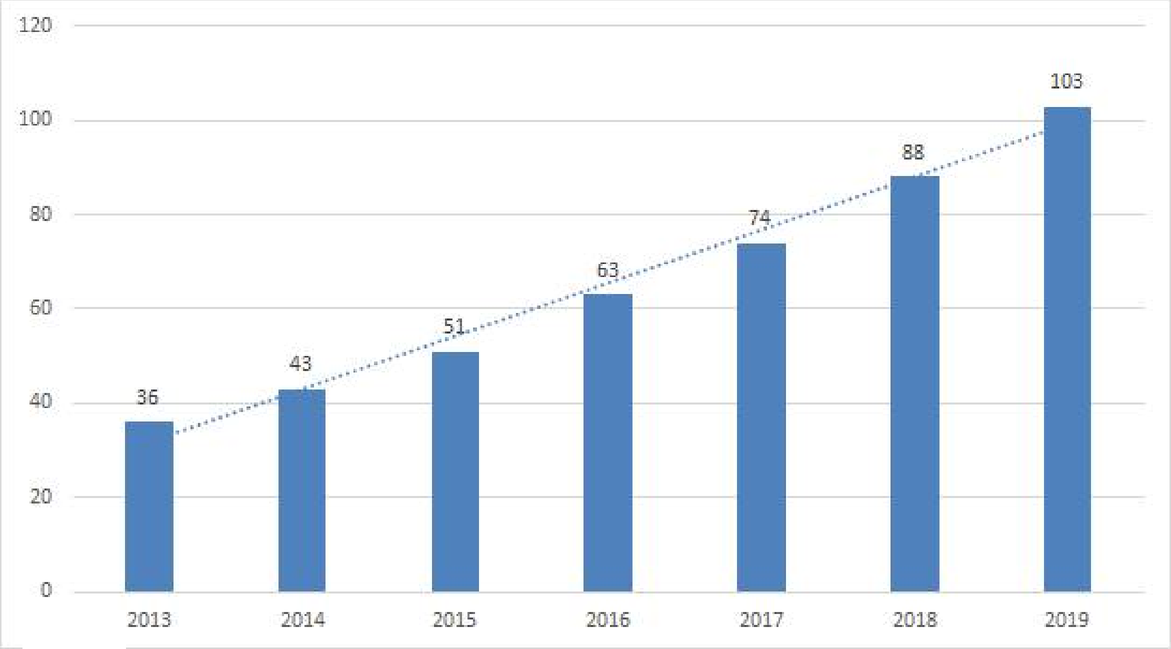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2019년 13개 주요국 국제 택배 건수 1,000억 건 돌파

13개 주요국의 국제 택배량

(단위 : 십억 건)



자료 : www.supplychaindive.com

- Pitney Bowes 2019 Parcel Shipping Index에 따르면, 2019년 13개 주요국의 국제 택배 건수가 1,000억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
  - 70파운드(3.15kg) 미만의 소하물을 추적함
  - 13개 주요국에는 미국, 캐나다, 브라질, 독일,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, 노르웨이, 스웨덴, 중국, 일본, 호주, 인도가 포함됨

- 2013년 대비 2019년의 국제 소하물 건수는 세배로 늘어남

- Pitney Bowes는 전자 상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2026년 연간 소하물 취급 건수가 2,200억~2,620억 건에 달할 것이라 예상함

참고자료 : www.supplychaindive.com(검색일: 2020. 10. 13)

류진아 연구원
051-797-4788, jaryu@kmi.re.kr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미국 제조·유통업체 캐리어,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기술 개발

- 캐리어(Carrier)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솔루션(The healthy, safe, sustainable cold chain program)을 개발함
  - 캐리어는 미국 최대 규모의 HVAC(heating,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) 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콜드체인 기술, 장비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  - 이는 지난 6월에 런칭된 캐리어의 Healthy Buildings Program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 및 의약품 물류를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

- 솔루션은 식품·의약품 안전, 안전한 백신 유통, 콜드체인 연계,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것임
  - 식품·의약품 안전은 전체 공급망(농장-최종 소비자, 의약품생산-환자)의 냉장기술에 대한 것임
  - 안전한 백신배포는 백신의 운반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임
  - 콜드체인 연계 분야는 디지털 솔루션으로서 콜드체인 전 구간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것임
  -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분야는 잘못된 콜드체인 관리로 인한 식품·의약품 손상 및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솔루션임

- 지난 7월, 노르웨이 비영리단체인 EAT 또한 식품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가능한 식품콜드체인 체계(NDGs, National Dietary Guidelines 등)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함
  - 식품 공급망(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)으로부터 유발되는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/4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
  - 현재의 국가별 식품소비패턴(식품소비, 폐기물)을 2050년까지 유지 시, 인간의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의 지구가 0.84~7.42개 정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함
  - 그러나 NDGs 등 식품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시행은 205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지구의 수를 0.84~4.67개로 감소시키며, 이는 적절한 콜드체인 관리(NDGs 등)의 중요성을 시사함

국가별 식품소비 패턴 유지 시 2050년까지 예상되는 지구(earth) 개수

자료 : EAT, Diets for a better future: rebooting and reimagning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system in the G20, 2020, p.33.

▌참고자료 : www.foodlogistics.com(검색일: 2020.10.16.), www.eatforum.org/(검색일: 2020.10.16.)

조지성 전문연구원
051-797-4916, jisungjo@kmi.re.kr

미 캘리포니아 수역, 내년부터 선박 기름유출 시 최고 100만 달러 벌금

-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역내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기름유출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음
  - 2020년 9월 24일,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의회에서 'Lempert-Keene-Seastrand 기름유출 방지 및 대응법' 개정안에 서명했음
  - 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(Japan P&I Club)[1] 2020년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함

- 캘리포니아주 Lempert-Keene-Seastrand 기름유출 방지 및 대응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
  - 선박의 기름유출 위반 1건당 벌금액은 현행 수준의 2배인 최고 100만 달러로 인상함
  - 1,000 갤런(약 3,790 리터)을 초과하는 기름유출의 경우에는 법원이 1 갤런(약 3.79 리터)당 최고 1,000 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
  - 상기 2가지 경우는 위반자가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고의로 기름을 유출했거나 혹은 기름유출을 초래할 행동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알게 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
  -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'합리적으로 알게 된'이란 표현은 단순 과실 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

- 캘리포니아주의 선박 기름유출 처벌 강화 결정으로 대상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P&I(보호·보장, Protection & Indemnity)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예견됨
  - 보험 관계자는 벌칙 강화의 근거가 되는 개정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단계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

-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(LA)항, 롱비치(LB)항에는 컨테이너선 및 자동차 전용선 등의 취항이 많으므로 향후 이들 선종에 대한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▎참고자료 : www.marinavi.com(검색일: 2020.10.12.), www.piclub.or.jp(검색일: 2020.10.12.)

한성일 부연구위원
051-797-4781, han@kmi.re.kr

1) 공식 영문명은 The Japan Ship Owners' Mutual Protection & Indemnity Association.

UPS 공급사슬솔루션, 베트남에 공세적 투자 확대

- UPS 공급사슬솔루션은 베트남에서 100%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
  - 호치민 깟 라이 항만(Cat Lai)과 하이퐁 북부 도시에 15,000 m^2 이상의 저장 창고를 임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호치민과 하이퐁에 4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
  - 지역 기업은 거의 모든 크기의 화물에 대해 2,300 개 이상의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 - 또한 14,000 개 이상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UPS 항공화물 네트워크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
  - UPS 공급사슬솔루션은 현재 세계 팰릿화물(palletized frieght) 및 루즈화물(loose cargo)에 대해 항만 간 및 도어 투 도어(D2D) 옵션으로 국제 항공·해상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- IMF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GDP는 전년 대비 2.7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최근 EU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관세율을 99% 축소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베트남의 전략적 위치를 확인함
  - UPS 아시아태평양 지사의 글로벌 포워딩 및 물류 담당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언급함
  - 위와 같은 이유로 UPS 공급사슬솔루션은 베트남에 투자하기로 확정함

참고자료 : www.gscintell.com(검색일: 2020.10.15)

김한나 연구원
051-797-4588, h.kim@kmi.re.kr